

벼 먹노린재 적기방제가 중요합니다!

발생현황

- 낙엽 밀이나 논둑에서 월동하며 연 1세대 발생
- 6월부터 본논으로 날아오며, 산란된 약충은 8월 하순이 최성기
- 전년에 비해 일반단지는 10%, 친환경단지는 5% 발생 증가



피해증상

- 벼 줄기에 구침을 박고 흡즙하여 피해부위에 얼룩이 생기고 피해를 받은 잎은 윗부분부터 마름
- 주로 논 중앙보다는 논둑에서 가까운 곳에 발생이 많음
- 출수 전후에 피해를 받으면 이삭이 말라죽고 백수현상이 나타남



먹노린재 모습



먹노린재 피해



먹노린재 피해

방제방법

- 먹노린재는 주로 벼 밑부분에 분포하므로 약제를 벼 포기 밑까지 충분히 살포
- 작은 충격이나 소리에도 줄기나 물속으로 숨는 습성이 있으니, 논물을 빼고 약제를 번갈아가며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아등이 설치된 친환경 단지는 흑색유아등을 작동시켜 포획

등록약제

식물보호제 (농약)

롱제로, 리바이짓드, 마샬, 마진, 만루포, 만장일치, 명타자, 바이킹, 볼케이노, 빅카드, 삼각편대, 세베로, 세시미, 술탄, 신나고, 쌀지기, 쏘버린, 아리이미다, 아타라, 에스지블루밍, 젠토시대, 청실홍실, 총패스, 코니도, 코사인, 콤비네, 쾌속탄, 투캡스, 포수, 풀코스, 풍년만세, 프라우스, 프로탄, 필충탄, 행진, 똑소리, 똑딱

친환경자재

제이인섹터, 단디단, 멸충대장골드, 홍맹이, NF제충이, 쓰리고, 멜구졸 등